

전남 농산어촌유학생 70% 기간연장

참가자 설문...6개월 연장 희망 생태감수성·사회성·체력 향상

전남도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농산어촌유학 프로그램' 참가자 10명 중 7명이 유학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2022학년도 1학기 농산어촌유학프로그램 참가자 3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설문에서 6개월 연장을 희망한 학생은 215명(70.7%)이다.

2년째 농산어촌유학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은 56명(18.4%)이며 3년 이상 장기유학을 희망한 학생은 60명(19.7%)이다.

3년 이상 장기유학 희망 학생 중 25명은 단기 유학 형태로 참여하던 중 '정주형 장기유학'으로 전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적 효과는 대상 학생의 87.2%가 생태감수성이 향상됐으며 사회성 향상(58.6%), 자연사랑(57.1%), 정서적 안정(54.3%), 체력 향상(34.3%) 순이다.

반면 단기 체류형 유학프로그램 참여한 가족들은 정주여건 미비를 개선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지난 9일 구례 중등초등학교에서 개최한 '전남농산어촌유학' 성과나눔의 날 행사에서 학생들이 오케스트라 공연을 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제공>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극성 오산초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은 자연 속에서 공부를 하니가 서 울보다 공부에 더 잘돼 지역의 중학교로 진학할 계획을 세우는 등 참가 학생의 만족도가 높다"며 "지역민들도 마을에 아이들과 젊은 사람들이 늘 어 활력이 넘친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농산어촌유학 프로그램 참여 가족이 지

역에서 3년 이상 생활하는 '정주형 장기유학'으로 확대하기 위해 체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농산어촌유학프로그램은 지난 2021년 시작됐으며 올해 참여학생은 전남지역 18개 시·군 50개 학교, 총 304명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전남교육청, 지역 역사 교육자료 발간

'전남의 3·1운동'·'전남의 도자기 문화'...중·고교 공공도서관 보급

3·1만세운동을 이끌었던 전남지역의 교사와 도자기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교육자료가 발간돼 일선 학교에 배포됐다.

전남도교육청은 지역사 교육자료인 '전남의 3·1운동'과 '전남의 도자기 문화'를 발간, 중·고등학교 및 산하 공공도서관에 보급했다고 밝혔다.

'전남의 3·1운동'은 동학농민혁명과 의병전쟁을 계승해 치열하게 3·1만세운동을 전개한 전남 곳곳의 사료와 선봉장 역할을 한 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전남의 도자기 문화'는 영암의 도기, 강진·해남의 청자, 고흥·광주·무안의 분청사기, 장흥의 백자 등 전남이 도자 문화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도 교육청은 지난 2019년부터 전남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는 교육자료 9종을 편찬해 학생 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또 교육자료를 활용해 역사와 문화



현장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타지역에서 전입한 교사들은 전남 곳곳의 역사를 잘 모르는데 역사교육 자료를 토대로 한 현장 연수가 진행돼 만족감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자료는 지역의 역사를 바로 알고 애郷심을 고취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빛가람 기술사업화정책 최고위과정 동신대, 공기업 임직원 23명 수료식

동신대학교(총장 이주희)가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에너지밸리 입주 기업 임직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네트워크 구축에 구심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동신대는 최근 대학 중앙도서관 1층 동강홀에서 '빛가람 기술사업화정책 최고위과정 제7기 수료식'을 가졌다.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전 KDN,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혁신도시 공기업 임직원과 에너지밸리 입주 기업 대표 등 23명이 20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수료했다.

빛가람 기술사업화 정책 최고위과정은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의 성공과 에너지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난 2016년 출범한 아카데미 과정이다.

1기 29명, 2기 33명, 3기 27명, 4기 21명, 5기 21명, 6기 24명, 7기 23명 등 현재까지 178명의 이수자를 배출했다.

이들은 최고위과정을 통해 탄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에너지밸리 중견기업의 역량 강화, 기술사업화 기반 확충과 네트워크 구축,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모으고 있다.

동신대 이주희 총장은 축사에서 "최고위과정에서 쌓은 지식과 정보와 네트워크가 큰 자산이 됐으면 좋겠다"며 "지역 기업들의 기술 사업화와 해외 시장 진출은 물론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통한 상호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대 한국어교육과가 8일 문병란 시인 생가에서 제1회 한국 문학기행을 개최한 가운데 최지수(왼쪽에서 세 번째) 교수와 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대, 문병란 시인 생가서 '한국문학기행'

시 낭송·백일장 열어

광주대학교(총장 김동진) 한국어교육과는 최근 문병란 시인 생가에서 제1회 한국 문학기행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문학기행은 최지수 교수의 '한국문학의 이해' 수업을 듣거나 행사에 관심이 있는 한국 학생과 베트남 및 중국 유학생들이 참여했으며 인문학적 사고를 부여하고 넓은 세계에서 꿈을 펼쳐보자는 목표로 진행됐다.

특히 학생들은 통일과 인권, 민주주의 가치를 추구한 문병란 시인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시

낭송과 백일장을 통해 문학적 메시지를 담아내는 시간을 가졌다.

'인생'을 주제로 진행된 시 백일장에서는 한국어교육과 김수은 학과장과 김윤희 교수, 공하림 교수 등이 참여한 심사를 통해 김예진(한국어교육과)씨가 금상을 받았다.

또 박한나(외국어학부), 천유강(문예창작과)씨가 각각 은상과 동상을 수상했다.

최지수 교수는 "매년 한국 문학기행을 개최해 학생들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폭넓은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한국말산업고,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 급성장

전국 단위 승마대회 잇따라 유치...2023년 승마단 결성 목표

전남 농촌 마을에 동지를 둔 한국말산업고등학교가 전국 단위 승마대회를 유치하는 등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12일 장흥군, 전남도교육청, 장흥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장흥군 대덕읍 소재 한국말산업고등학교 승마실습장에서 지난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제8회 전남도영산강배 전국장애인 승마대회가 열렸다. <사진>

이번 대회에는 전남장애인승마협회 김도형 회장을 비롯한 제주도, 대구, 부산 각지 승마협회 관계자와 장흥교육지원청 김성호 교육장,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형대 도의원(진보당·장흥1), 장흥군 김용길 대덕읍장 등이 참석해 승마 저변 확대 등에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한국말산업고등학교는 이번 대회에서 1만평 규모의 실습장을 제공하고, 학교 말 5필과 관련 장비, 마사 10실, 자원봉사 학생 7명을 지원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 성공적인 대회 운영에 큰 힘

을 보냈다. 한국말산업고등학교는 이번 대회에 앞서 지난 3월에도 2022년도 유소년승마대회 및 전남소년체전 선발전 등 전국 대회를 유치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바 있다.

말산업 저변확대와 전문인력 양성을 이끌고 있는 한국말산업고등학교는 전국단위 신입생 모집학교로, 인근 광주를 비롯한 인천, 경남 등 전국 곳곳에서 신입생(2023학년도 기준)이 찾아오고 있다.

최근 전국 대회 유치를 성공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한국말산업고등학교는 2023학년도 목표로 승마단 결성 의지도 다지고 있다.

한국말산업고등학교 김형수 교장은 "말산업은 이제 순수한 농업을 넘어 체육과 문화 예술까지 접목하는 종합예술로 발전하고 있다"면서 "끊임없는 선진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미래의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밝혔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채본부장 kykim@

튼튼한 지키자

실손의료보험! 국민건강!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